

600만 자영업자 대형마트 불매운동

15일부터...카드 수수료율 개선·의무휴업 준수 요구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불리한 카드 수수료율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대형마트 의무휴업마저 법원에서 제동을 걸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역에서도 롯데쇼핑의 창고형 할인매장(북구 신원동)과 대형마트(북구 운암동)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롯데 제품 불매운동 등을 비롯해 롯데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을 검토 중에 있다.

◇9개 마트·백화점 대상=2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 시민행동(이하 소비자연맹)은 숙박업, 유흥음식업 등 80여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영업단체 회원들의 가족까지 합쳐 불매 운동 참여자는 최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소비자연맹 측은 추정했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카드사를 압박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는 관행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무기한 전개하기로 했다.

불매 운동 대상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다.

◇불매운동 배경=자영업자단체가

강경책을 선택한 것은 최근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다, 오는 12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자영업자들의 불매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영업 점포 안팎에 불매운동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법국민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1% 중반대의 수수료율을 매

기면서 자영업에는 2% 후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말 실행 행사에 나섰다.

2.6%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 수수료율 개편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들 단체는 주요 카드사의 영업 행태를 주시하면서 대형 가맹점에 유리한 정책을 쓰면 곧바로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을 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시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어린이들이 키즈커버리 '베어빌리지 존'에서 소프트폼으로 제작된 악어 모형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에버랜드 제공>

창의력 쑥쑥 키우는 어린이 탐험공간

에버랜드 '키즈커버리' 인기

에버랜드가 오픈한 2~7세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 키즈커버리(Kizcovery)가 인기다.

키즈커버리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즈(Kids)'와 탐험과 발견을 뜻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탐험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총 면적 1450㎡의 키즈커버리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메인 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와 편의 공간인 '맘스카페' '베어빌리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베어빌리지, 몽키 탐험, 라이온즈 랜 등 8개 존으로 나뉘었으며 각 존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및 정글 컨셉을 접목해 자연스러운 생태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2~4세 아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틀러존'을 별도 설치해 몸집이 작은 영아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키즈커버리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조형물에 미국 친환경 놀이시설 전문업체가 제작한 특수 소프트폼을 사용했으며 아이들이 조형물에 부딪쳐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를 특수 처리하는 등 안전과 항균기능성을 높였다. 또 운영 인력도 타 시설 2배 배치해 어린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키즈커버리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 품질안전 인증 기관인 독일 TÜV Nord사가 주관하는 친아동놀이시설 'Ok For Kids'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과 편의성 뿐 아니라 학습적 측면도 고려했다. 모든 조형물들은 생각에 따라 놀이 방법을 다

양하게 바꿀 수 있게 제작돼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이외에 '맘스카페'는 벽면을 모두 개방해 부모들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카페 내 설치된 CCTV로 시야 밖의 공간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키즈커버리는 1시간 단위로 입장에 40분 이용후 함께 퇴장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객들은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에버랜드 연간회원 및 자유이용권 소지자의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자유이용권이 필요없는 36개월 미만 유아나 입장권만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5000원에 시설 이용권 구매가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악신도시에 소형 오피스텔 분양

'유타유블레스 900' 895실...목포에 견본주택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에 소형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주)유타엔지니어링은 2일 전남도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시설이 밀집해 있는 무안 남악신도시 4-5, 6블록에 소형 오피스텔인 '남악 유타유블레스 900'을 지난 29일부터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조감도>

'남악 유타유블레스 900'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8㎡(8.54평) 827실, 34㎡(10.5평) 17실, 48㎡(14.6평) 51실 총 895실 규모다.

이 오피스텔은 조식은 물론 코인세탁실, 피트니스센터, 첨단방범시스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형으로, 오피스텔의 고급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로이복층유리, 벽걸이 에어컨, 빌트인 가전, 불박이장 등을 적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전남도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시설이 밀집해 있는 남악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각종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수요층이 두

텃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주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8만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상품으로도 손색없다는 분석이다.

파격적인 분양가와 수익을 뚝한 배움을 수 없는 매력이다. '남악 유타유블레스 900'은 시세 대비 3.3㎡당 약 100여만원이나 저렴한 400만원대 후반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선보였다.

또 최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금액은 낮으면서 연 12~16%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이는 1억원을 투자할 경우 5년 동안 약 6000만원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모텔하우스는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탈아파트 인근에 마련됐으며, 3일까지 청약에 받아 4일 추첨해 5~7일 계약하면 된다. 분양 문의 061-285-8384. /박정욱기자 jwpark@

기아차 상반기 139만 6000대 판매

역대 최대 실적...국내 3.7% 감소 해외 16.4% 증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23만 9138대, 해외 115만 7005대 등 총 139만 6143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국내 판매는 작년 대비 3.7% 줄었지만 해외 판매는 16.4%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은 12.4% 늘었다.

해외 판매의 경우 국내 생산분은 61만 3183대로 13.4% 늘었고 해외생산분은 54만 3822대로 20.1% 증가했다.

기아차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판매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영환경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상반기까지 7%대의 성장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유타발 재정위기의 신종시장 확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는 155만대에 그쳐 작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아차는 올해 6월에는 국내 4만 2111대, 해외 19만 206대 등 총 23만 2317대를 판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럽수출 中 56% “하반기 수출 감소”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유럽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견조성' 결과에 따르면 56.3%가 '하반기에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1.0%를 차지했으며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수출 감소에 따른 기업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72.2%가 '신규시장 진출 등 판로 다변화 노력'을 꼽았으며 '건축경영'(40.2%), '사업축소·전환'(28.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유럽을 대신해 새로 진출하려는 시장으로는 미국(22.3%), 중국(19.0%), 동남아시아(13.0%), 브라질(11.0%) 등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산은, 하반기 조선·석유화학·철강 부진 전망

산업은행은 2일 '2012년 하반기 국내 주요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이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은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내 10대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과 철강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다 내수 부진이 겹쳐 회복이 늦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은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성장을 자체는 높여야겠지만, 실제 회복세는 저조할 것으로 봤다.

현대전환은 세계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성은 좋겠지만, 생산기지가 국외로 옮겨 국내 생산과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 경쟁력과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는 생산과 수출이 모두 편향을 것으로 관측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51.65 (-2.36)
코스닥지수	490.43 (+1.27)
금리 (국고채 3년)	3.30% (0.00)
원·달러 환율	1,146.10원 (+0.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BEECHCRAFT 1900D

전 세계적으로 그 안정성을 인정받아 동급 소형항공기 중 베스트 셀러. 비교적 저고도 운항으로 비행중 좌파 안정이 가능하며 1인석 구조로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원도 가는 빠르고 편안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1시간 20분만에 도착! 양양에서 강릉, 속초까지 차량으로 30분!

광주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주 3회 왕복운항 합니다.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KOREA EXPRESS AIR**

(최초 에어택시 운영, 첫운항 후 무조건 안전운항 중)

문의처 : 예약전화 : 1661-2682, www.keair.co.kr · 공항안내 : www.airport.co.kr/doc/yangyang

신규취항 이벤트

6월 유틸증로 먼저 군장병 20% 할인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영

- 원래의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않아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팔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를 및 이미지 도를시 개발번호이) 법적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로만 집안에서는 뭣건달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로 새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구속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세는내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동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회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준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